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윤 수석대변인(010-4455-8255)/김기윤 상황실장(010-5314-0062)

## 청년과 국민의 곁으로, 청년이 직접 만든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및 송영길 당대표 참석, 오픈형 미래당사 개관 축하
- 청년이 직접 만들고, 국민과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합정역·홍대역 인근 위치

청년과 국민에게 문턱을 더 낮춘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청년선대위’)는 2일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민주당 당사 공간인 미래당사 ‘블루소다’를 개관했다.

오늘 개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오영환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미래당사 ‘블루소다’는 민주당의 대표 색 파란색(블루)과 이재명 후보를 연상하는 사이다의 탄산 이미지를 합쳐서 명명했다. 블루소다는 합정역과 홍대역 사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과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형 공간으로 마련됐다.

청년선대위는 개관한 미래당사 블루소다는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된 지금의 청년과 국민의 일상에 톡 쏘는 푸른 탄산처럼 청량감을 주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

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선대위는 블루소다 공간에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을 적용해 장애·성별·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조성했으며, 페달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전거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 속 환경 실천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리스너 프로젝트’를 중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7개 광역지역에서 총 307명의 리스너를 모았고, 801명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정치와 정책 의견을 모아냈다.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대표적 의견으로는 ▲청약 가산점 제도 변경, ▲위기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과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수집된 제안과 의견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오늘 개관식에는 청년선대위에 인선된 분야별 청년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년선대위 서난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곁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처럼, 생활 속에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 당사를 통해 정치 참여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블루소다 개관이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소다’는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92, 유남빌딩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끝)

[첨부] 개관식 현장 사진

